볼빨간사춘기 측 "차트조작 의혹 제기, 사과 않을시 고소"

쇼파르뮤직, 김근태 후보 음원 사재기 의혹 관련 정식 사과 요구

"실명 언급으로 중대한 명예훼손 등 피해 입어…근거 공개하길"

가수 볼빨간사춘기 측이 음원 차트 조작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당 김근태 비례대 후보에게 정식 사과를 요구했다.

볼빨간사춘기 소속사 쇼파르뮤직은 16일 지난 8일 김근태 후보가 제기한 음원 사재기 의혹과 관련, 재차 입장을 내고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으로,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차트 조작을 의뢰하거나 시도한 적이 전혀 없었음을 명백히 알려드리는 바"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김근태 후보에게 묻고 싶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A가수는 조작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페이크용 스트리밍으로 이용된 거고 볼빨간사춘기는 순위 조작을 위한 스트리밍이다' 라고 한 것은 김근태 후보가 직접 판단하고 발표한 것이냐.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했다.

또 "볼빨간사춘기는 이미 2016년 4월에 데뷔해 그 해에만 '우주를 줄게' '나만 안 되는 연애' '좋다고 말해' '심술' 'you' 등을 히트시키며 1위 및 상위권에 여러 곡을 안착시켰다. 하지만 크레이티버는 2017년 3월에 설립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미 높은 인지도와 히트곡을 보유한 상황에서, 굳이 큰 돈을 들여가며 순위 조작을 의뢰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당사와 크레이티버가 어떤 근거로 상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어 "소속사가 제작 및 홍보하지 않은 앨범인 드라마 OST 곡이 있는데, OST는 섭외를 받아서 참여한 부분이고 저작인접권 및 수익권, 홍보적인 권한 또한 드라마 OST 업체 쪽에서 모두 가지고 있다. 김 후보가 확보했다는 순위 조작 스트리밍 증거가 혹시 이 드라마 OST인가. 그렇다면 볼빨간사춘기와 쇼파르뮤직은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라며 "소속사가 제작, 홍보를 진행한 곡인지 아닌지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확보했다는 증거자료를 최소한 곡명이라도 공개해 달라. 만약 그 곡이 OST가 맞다면, 부디 그 OST 제작사와 음원 차트 조작 사실 관계를 소명하길 바란다"라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김근태 후보가 직접 실명을 언급함으로 인해 볼빨간사춘기와 소속사는 중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피해를 입고 있는바, 당사가 음원 조작을 시도했다는 근거를 명백히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당사와 해당 아티스트에게 하루빨리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조속한 시일 안에 공식적인 사과가 이루어지질 않을 시에는 국민의당 김근태 후보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것임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김근태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더 마케팅 회사 크레이티버가 불법 해킹으로 취득한 일반인들의 ID로 음원차트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승형, 공원소녀, 배드키즈, 볼빨간사춘기, 송하예, 영탁, 요요미, 소향, 알리, 이기광 등이 음원 차트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까지 실명이 거론된 가수들 모두 음원 차트 조작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했고, 일부 가수들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또 이기광은 13일 김근태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뉴스1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범형사 · 우아한 친구들' 첫방 연기

JTBC, 7월로변경…쌍갑포차는 예정대로 내달 20일

JTB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됨에 따라 드라마 편성 일정을 변경했다.

JTBC는 16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의 이슈로 드라마 편성 일정을 일부 변경한다"라며 '모범형사(사진)' 와 '우아한 친구들' 의 편성을 연기했음을 밝혔다.

오는 27일 처음 방송될 예정이었던 월화드라마 '모범형사' 는 7월로 편성을 변경했으며, 5월에는 정일우 강지영 주연의 '야식남녀' 가 특별 편성된다.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 종영 후에는 영국 BBC 원작 드라마 '닥터 포스터' 가 특별 편성된다. 이에 따라 5월 중 방송될 예정이었던 '우아한 친구들' 은 7월로 편성이 연기됐다.

다만 '쌍갑포차' 는 예정대로 5월20일 오후 9시30분 처음 방송된다.

영탁 · 윤희, 커플템으로 열애설 의혹→양측 모두 부인

"실제로 친분 두터지만 연인 사이는 사실 무근"

트로트 가수 윤희(38)가 영탁(37)의 열애설이 불거진 가운데, 양측 모두 이를 부인하며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윤희와 영탁의 열애설이 불거졌다. 특히 두 사람이 모자, 운동화, 휴대폰 케이스 등 비슷한 물건들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네티즌들은 이를 '커플템' 으로 의심하고 두 사람이 사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친분이 두터운 사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SBS '집사부일체' 장윤정 편에 후배 가수로 함께 등장했으며 영탁은 윤희의 곡 '나 혼자 산다' 를 작사, 작곡하기도 했다. 이에 열애설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아니라며 열애설을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영탁 측 관계자는 15일 뉴스1에 "(열애설은) 전혀 아니다, 사실무근"이라며 소문을 일축했다.

윤희 역시 16일 자신의 SNS에서 한 네티즌이 영탁과 열애설이 난 일에 대해 묻자 "걱정하지 마세요, 아닙니다"라며 "지금 제가 회사랑 정리를 해서 공식입장 발표하는 과정이 생략이 됐네요"라고 답해 소문을 부인했다.

한편 영탁은 지난 2007년 발라드 가수로 데뷔한 뒤 활동하다가 2013년 트로트 가수로 전향했다. 2018년에는 싱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를 발표해 유명세를 탔으며, 최근 화제 속에 종영한 TV조선(TV CHOSUN) '내일은 미스터트롯' 에서 최종 선(善)을 차지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윤희는 지난 2009년 '빨리와' 로 데뷔한 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그룹 오로라 멤버로 활동했으며 이후 솔로로 전향해 '아뿔사', '나 혼자 산다' 등을 발표했다.

음문석, SBS '편의점 샛별이' 지창욱 친구 된다

'열혈사제' PD와 재회…오는 6월 첫방송

배우 음문석이 SBS 새 금토드라마 '편의점 샛별이' 에 합류한다.

오는 6월 첫 방송 예정인 '편의점 샛별이' 는 4차원 알바생 정샛별(김유정 분)과 허당기 넘치는 훈남 점장 최대현(지창욱 분)이 편의점을 무대로 펼치는 24시간 예측불허 코믹 로맨스다.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 는 지난해 SBS 금토드라마 라인업의 첫 번째 작품이자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은 '열혈사제' 의 이명우 감독이 연출을 맡아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 가운데 음문석은 최대현의 절친한 친구이자 웹툰 작가 달식으로 분해 전천후 활약할 전망이다. 극 중 달식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개성 넘치는 인물이자 매력의 소유자로 친구 최대현과 차진 케미스트리는 물론 드라마의 재미를 한층 더 증폭시킬 예정이다.

앞서 음문석은 '열혈사제' 에서 독보적인 캐릭터 장룡으로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얼굴을 알렸다. 캐릭터의 특성을 트레이드 마크인 단발 머리와 구성진 충청도 사투리, 생동감 넘치는 표정으로 살려내며 호연을 펼쳐 2019년 SBS 연기대상에서 '남자 신인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그 뿐만 아니라 OCN '본 대로 말하라' 에선 이중적인 캐릭터 강동식과 김요한으로 완벽하게 분해 안방극장을 압도했다. 평범하디 평범한 시골 순경 강동식에서 잔혹한 살인마 김요한으로 스며드는 음문석의 열연이 회를 거듭할수록 감탄을 일으켰던 것. 특히 뚜렷한 온도차를 보여주며 캐릭터를 소화한 음문석은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입증하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매 작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꾀하는 음문석이 '편의점 샛별이' 를 통해 어떤 매력과 연기를 선사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음문석이 합류한 '편의점 샛별이는' 오는 6월 처음 방송될 예정이다.

이대원 · 황윤성 · 강태관 · 김경민 등 미스터t, 조영수 프로듀싱 곡으로 출격

TV조선(TV CHOSUN) '내일은 미스터트롯' 출신 4인조 그룹 미스터t(가칭)를 위해 조영수 프로듀서가 두 팔을 걷어붙였다.

미스터t(이대원 황윤성 강태관 김경민)의 공식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withHC(위드에이치씨)는 16일 "조영수 프로듀서가 미스터t의 메인 타이틀곡을 프로듀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히트곡 제조기 조영수 프로듀서는 '미스터트롯' 마스터로 활약하며 미스터t 멤버들과 인연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이틀곡 프로듀싱까지 참여하게 됐다.

조영수 프로듀서는 홍진영 '사랑의 배터리' '산다는 건', 유산슬 '사랑의 재개발', 임영웅 '이제 나만 믿어요' 등 트로트 장르에서도 수많은 히트곡을 배출한 만큼, 미스터t가 발표할 신곡에도 많은 기대가 모아진다.

미스터t는 '미스터트롯' 에서 인상 깊은 활약을 펼친 이대원, 황윤성, 강태관, 김경민이 결성한 4인조 유닛 그룹으로, 개개인의 유니크한 개성과 매력을 앞세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한편 미스터t는 정식 출격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이핑크, '덤더럼' 나흘 연속 음원차트 정상

10년 차 아이돌 저력

완전체 컴백한 에이핑크(Apink)가 나흘 연속 음원 차트 정상을 석권하며 인기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에이핑크는 16일 오전 9시 기준 미니 9집 '룩' (LOOK)의 타이틀곡 '덤더럼' (Dumhdurum)으로 멜론, 지니, 벅스, 네이버 뮤직 등 주요 음원 차트에서 나흘째 1위를 유지하며 정상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 14일 기준 멜론 일간 차트 1위를 달성하며, 2020년 올해 남녀 통틀어 아이돌 그룹으로는 처음으로 일간 음원 차트 정상을 차지하게 됐다.

지난 13일 미니 9집 '룩' 을 발표한 에이핑크는 음원 공개 5시간 만에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주요 음원 차트 5곳을 올킬하며 강력한 음원 파워를 과시했다. 이는 10년 차 걸그룹인 에이핑크가 지난 2015년 '리멤버' (Remember) 이후 약 5년 만에 이룬 성과로 더욱 뜻깊다.

에이핑크는 음원과 함께 음반에서도 강세를 드러내고 있다. 미니 9집 '룩' 은 13일 기준 음반 집계 사이트인 가온 차트 리테일 앨범 일간 차트와 한터 차트 일간 음반 판매량 정상을 차지했다.

'덤더럼' 은 '떠난 사랑 앞에 내 마음이 덤덤하다' 는 의미를 '덤더럼' 이라는 단어로 담아냈으며, 스페니쉬하고 동양적인 감성과 중독적인 사운드가 매력적인 댄스곡이다.

칸영화제 집행위원장 "가을께 영화제 개최 희망…베니스와 협업도"

프랑스 정부가 7월 중순까지 대형 행사를 금지해 칸영화제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티에리 프리모 칸영화제 집행위원장이 한 인터뷰에서 "영화 산업과 극장 재개를 돕기 위해 가을께 영화제가 열리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티에리 프리모 집행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영화와 영화 산업이 위협받고 있다. 다시 한 번 힘을 갖고 통합하고 연대해 영화와 영화산업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티에리 프리모 집행위원장은 알베르토 바르베라 베니스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과 함께 "무엇인가 함께 하자"고 논의 중이라며 베니스 국제영화제와의 협업 가능성을 시사했다.